

공공근로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.

-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국 762개 사업장에서 1일 평균 29,000여 명이 참여하여 '98. 9.20일 현재 연 고용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중에서 가장많은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었다고 밝혔다.
- 또한 실업자 고용창출은 물론 청년기에 이른 28천ha의 산림을 가꾸어 줌으로서 숲의 경제·환경적 가치를 크게 증대시켰으며 간벌재등 숲 가꾸기 산물 20천m³을 수집하여 칩, 통나무집 건축자재로 활용하므로써 20억원의 외화를 절약한 것으로 나

타났으며, 목재로 이용되지 않는 어린가지와 잎등으로 톱밥과 조사료를 생산,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용 톱밥과 조사료로 공급하여 수질개선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.

- 산림청은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숲 가꾸기와 지방자치단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요령에 따라 생태적·기술적·경제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IMF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실업대책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.

내한성 다래 우량품종 개발

산림청 임업연구원(원장 박재욱)에서 양다래(키위)의 국내종 다래를 인공교배하여 내한력이 강하며 과실이 크고 맛도 좋은 신품종 다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.

- 산림청 임업연구원(원장 : 박재욱)에 따르면 양다래는 추위에 약해 제주 및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 일부지방에서만 재배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개발한 신품종 다래는 내한성이 강

해 수원 이남지역까지 확대지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- 이 신품종 다래는 양다래(Hayward)를 교배모수로 하고 국내종 다래(명주 15호)를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육성한 다래 교잡종으로 국내종 다래보다 열매크기가 4배이상 크고 맛도 좋으며 내한력이 강해 수원지역 이남까지 확대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교잡종 다래의 특성 비교

품 종	과실무게	과실당도	지배가능 지역
교 잡 종 다 래	65.5g	6.4%	수원이남
국 내 종 다 래	16.8	5.8	전 구
양 다 래 (키 위)	72.9	4.6	남 해 안

- 현재 양다래의 국내 수요량은 22,000톤이며 이중 8,000여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, 영양가가 높고 비타민C 등이 풍부한 고

급과실로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농산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숲 가꾸기 산물로 조사료(툽밥·생가지·잎)생산

— 연간 1천 5백만불의 외화절약 —

- 산림청은 정부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는 간벌재, 작은가지, 잎 등을 수집, 툽밥을 만들어 이를 발효시켜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공급할 경우 연간 1천 5백만불 상당의 외화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면서
- '98. 9.26일 공주소재 숲가꾸기 사업장 및 축산농가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툽밥제조, 툽밥조사료 먹여주기 시연회를 가졌다.

『김성훈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시연회 참관』

산림청은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툽밥제조 및 툽밥조사료 먹이기 시연회를 '98. 9.26일 충남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소재 장군목장(목장주:이종영 ☎ 0416-841-8390)에서 갖기로 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김성훈 농림부장관, 이보식 산림청장, 김강권 농촌진흥청장, 이윤중 임협중앙회장, 원철희 농협중앙회장, 박순용 축협중앙회장 등이 참석